

# 보고 듣고 느끼며...보랏빛 소리풍경 속으로



다음달 1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클럽 리에중' 전경.



전시장 벽에 설치된 조명볼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클럽 리에중' 내 통로 공간.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리뷰

### 12월1일까지 이강하미술관... '클럽 리에중' 주제 라텍스·뱃줄 등 재료적 실험 및 다양한 공간 모색 무대·객석간 경계 허물며 서로 '연결' 되는 경험도

보랏빛 커튼이 전시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짙은 라텍스 향이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며 관객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마치 공연이 끝난 무대 뒤를 헤매는 것 같기도 하다. 신비로운 음악이 흘러나오며 공간을 가득 채운다. 벽을 따라 촘촘하게 설치된 조명볼을 지나치며 우리는 '클럽 리에중'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이강하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작

가리클라프가 만들어낸 이 내밀한 공간은 카바레에서 영감을 받았다. 재료적 실험을 거듭하는 작가는 축약적인 특성이 도드라지는 '라텍스'를 작품의 주요 요소로 사용한다.

마치 사람의 피부 표면과도 같은 라텍스 커튼은 작가가 일일이 수작업한 것으로, 황마를 보강재로 삼고 뱃줄을 이어붙여 완성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각기 다른 길이의 커튼은 전시장 한가운데인 무대를 중심으로 실내를 호화롭게 감싼다.

'클럽 리에중'을 주제로 다음달 1일

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무대와 객석, 휴식과 퍼포먼스 장소 간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관계, 연결된다는 뜻의 '리에중'은 작가 라프의 예술적 접근법을 완벽하게 표현해낸다.

광주비엔날레가 진행되는 동안 이 클럽에서는 스케줄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퍼포먼스 예술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공연을 선보여오고 있다.

공연이 없는 시간에도 관객들은 풍부한 분위기의 음악을 듣게 된다.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보컬리스트 카롤리나 프로이슬의 사운드 작품 '자이트가 이스트'다. 이 새로운 실험적 사운드는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주제인 '관소리'를 반영하듯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장 바깥 입구에서는 작가 인터뷰 및 일련의 작업과정을 담은 14분 가량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작가는 영상을 통해 "클럽 리에중"은 개개의 이야기가 모여 집단적 순간을 이룬다"며 "이같은 스토리텔링은 본전시 주제인 '관소리'와도 공명하는 지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객들은 공연이 진행되지 않을 때라도 마치 잔향처럼 공간이 주는 바이브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해진 퍼포먼스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역동적이고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가 전시 공간을 차곡차곡 채운다.

이 감각적인 공간을 장식할 마지막 공연은 오는 30일 오후 7시 루카 분야 모레와 라우 루카말라, 카롤리나 프로이슬 총 3명의 예술가가 꾸민다. 내밀한 기억을 담은 퍼포먼스와 전자기가·노이즈 등 보컬실험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 '기타, 영화를 만나다'

### 영화음악가 이병우 11시 음악산책...26일 광주예당 소극장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전해줄 영화 OST 연주회가 마련됐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강연자는 기타로 모든 음악을 표현하는 멀티 기타플레이어이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1호 이병우다.

그는 조동익과 함께 1980년대 전설적인 포크 듀오 '어떤날'로 데뷔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클래식 기타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피바디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그바탕 위에 팝·재즈·블루스·록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결합한 작품을 작곡, 연주하고 있다.

그의 필모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화음악가로서의 활동이다. 영화 '왕의 남자', '마더', '해운대', '관상', '국제시장' 등 30여 편의 영화음악을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1호 이병우

작업했고 제27회 청룡영화상 음악상(2006), 제18회 부일영화상 음악상(2009) 등 수많은 음악상을 받으며 영화 음악

계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타, 영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공연에서는 영화 '스캔들-남녀상열지사', '왕의 남자', '마더', '장화홍련', '괴물' 등 OST를 영상과 연주, 이야기로 나눌 예정이다.

공연 진행은 KBS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의 이상현 아나운서가 맡는다. 여기에 기타 이병우, 바이올린 이호준, 최지은, 비올라 조재현, 첼로 정광준, 더블베이스 김민기가 스트링 선율의 감동을 전한다.

공연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월출산, 달이 피다'展... '동화가 된 일상'展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기념展

내년 2월9일까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2024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기념 전시회 '월출산, 달이 피다'와 정승원 작가 초대전 '동화가 된 일상'을 개최한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내년 2월9일까지 창작교육관 1,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상호작 '월출산구정본' 목판화

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영암과 남도를 대표하는 중견작가 7인이 월출산과 달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감동을 전한다.

분출하는 산의 기운을 그린 송필용, 산의 신비와 숭고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류재웅, 여운에서 바라본 남도의 풍경을 담은 하성흙, 바위산 골짜기 마다의 신비를 담아낸 정선휘, 개산리에서 바라본 장엄함을 표현한 박성우, 달빛에 비친 바위산을 소개한 조병연, 구정봉에 담긴 민중의 염원을 전달한 이상호 작가가 전시에 참여한다.

창작교육관에서는 청년작가 정승원이 독일 유학의 추억을 복유럽 색채와 동화적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귀국 후 일상이 주는 긍정과 행복의 기억을 한국의 소재로 표현한 작품, 일상의 소재로 꾸민 다양한 작업도 선보



정승원작 'Fairy Tales of Tiger'

인다.

창작관 2전시실에서는 정승원 전시와 연결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미술체험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아트놀이터가 운영된다. 관객들은 정 작가의 작품 스케치에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며, 소원도 남기며 미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 '파워 우먼'...5인5색 매력속으로

오는 16일까지 이화갤러리



한남순작 '축제 G-1'

광주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여성작가 5명이 모였다.

오는 16일까지 이화갤러리에서 열리는 '파워우먼' 기획전이다.

전시 참여작가는 이영실·이창화·이지연·정인선·한남순이다. 이들 작가는 모두 이화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경험이 있으며, 각기 다른 화풍을 지니고 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그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 붓을 들 때가 제일 행복한 '파워우먼들'이다.

전시에서는 소소한 행복을 담은 일상 모습부터 자연의 아름다움, 어둠을 밝히는 불꽃

의 향연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정화 이화갤러리 대표는 "이번 전시가 작가들에게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